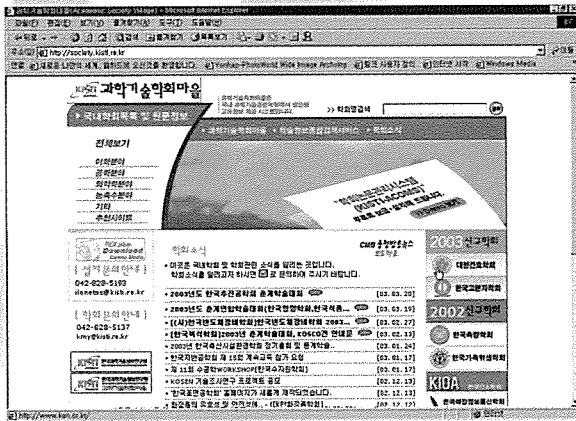


검지하나 달걀 들고 떠나는 '정보 여행'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현재 211개 학회의 학회지에 대해 목차서비스 및 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학, 공학, 의약학, 농축수, 기타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여 손쉽게 검색·접속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학회소식란을 두고 어느 학회가 어떤 학술회의를 어디에서 언제 개최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국내의 학회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분석
<http://analysis.kisti.re.kr>



국내 이공계 학회지의 논문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즉석에서 원문서비스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국내 최대 사이트이다. 그것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이며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로써 국내 이공계 학술정보유통 수준을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된다.

국내 과학기술계의 주력 인력 즉, 기업 및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 및 교수들이 가장 불편해하던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진 학문분야의 학술논문을 하루라도 빨리 손쉽게 정확하게 입수하기를 원한다. 그간 외국 학술논문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국내 학술논문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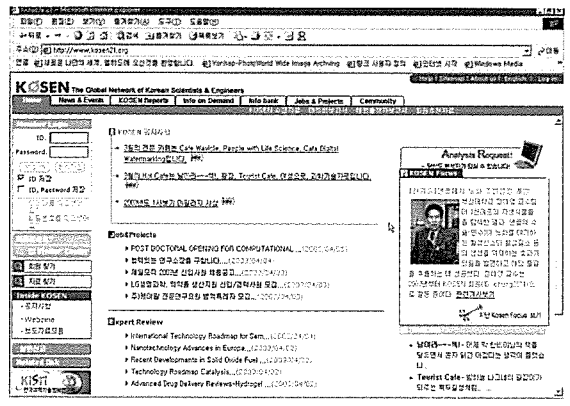
최근 오픈한 사이트로서 최고경영자, 정책입안자, 기획업 무담당자 등이 특정분야 기술발전 동향을 파악하거나 특정 기술을 종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가공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는 기관 운영의 최고책임자 경력을 가진 고경력과학자가 집필하고 있어 그만큼 무게와 깊이를 갖고 있으면서 난해한 과학기술 전

문용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학술논문보다는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분야 간의 협동이 필요한 퓨전 형태의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팀에서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타 전공분야 기술의 개념을 빨리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기술뉴스브리프, 고경력과학기술자, 심층정보분석보고서, 기술동향분석보고서, 기술가치평가보고서, 해외과학기술동향 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후 작성한 간략한 보고서를 게재한 것으로 세계의 학회 동향을 알 수 있다. 첨단기술보고서는 해외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근거로 KOSEN에서 작성한 기술보고서들이다. 미의 회보고서는 미국의 7백여 석학들이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기술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 고급 연구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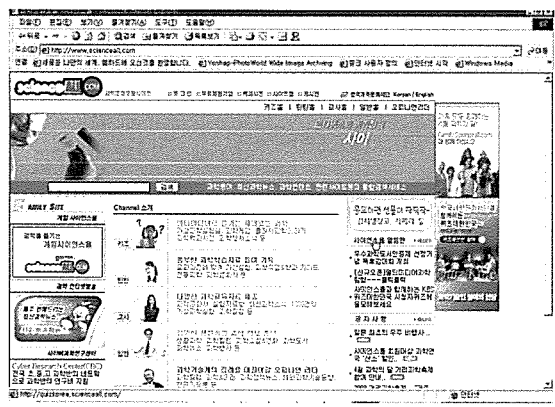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http://www.kosen21.org>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과학 선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교포 한민족 과학기술자들과 국내과학자들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기술정보 광장이다. 이 사이트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료로 고급 기술정보를 서비스한다.

특히 KOSEN Reports 부분과 미의회보고서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KOSEN Reports는 Expert Review, Conference Reports, 첨단기술보고서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Expert Review는 각국의 재외과학자가 읽어 보고 가치가 있다고 일차로 추천하는 자료를 근거로 이를 중견 과학자가 2차로 선별하여 우리말로 요약한 분석문과 첨부한 자료들을 게재한 것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비중 있는 기술동향 자료를 접할 수 있다. Conference Reports는 과학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참석한

과학문화포탈사이트 <http://www.scienceall.com>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서 과학의 대중화를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과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과학뉴스와 과학상식을 얻기 위해서 방문할만한 사이트이다. 과학뉴스는 국내의 모든 일간지에 발표되는 과학기사를 종합게재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한 과학분야 인터넷방송국(<http://scienceall.tv>)이 자매 사이트로 링크되어 있어 다양한 과학뉴스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작년 중반 이후부터 사이트를 대폭 개편하여 내용이 매우 충실해졌으며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히 글로 표현한 과학상식이 아니라 보고 듣고 읽는 멀티미디어 과학상식 포털로 변신하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약 5000점의 사진, 편지, 당시의 지도, 일기, 신문 스크랩,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보여준다. 티렐 팀은 이 지역 지도를 더 상세하게 만들었고, 지질학적인 표본 물질을 수집했으며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수집했다.

글 | 강박광 과총 과학기술정보사업단장